

여러분

이번에는 오는 5 월 가나자와에서 개최되는 제 2 회 일·불(日仏) 지자체 교류회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불 수호 150 주년에 해당하는 2008 년 10 월에 가나자와시의 자매도시 프랑스 낭시에서 29 개 지자체가 참가한 제 1 회 일·불 지자체 교류회의가 개최되어, 회의 성과를 정리한 공동 코뮈니케에서 제 2 회 회의를 가나자와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장(会場)은 가나자와 21 세기 미술관을 주 회장으로 한 3 개 회장에서 실시됩니다.

2010 년 5 월에 개최되는 제 2 회 회의에서는 일·불의 자매·우호 관계에 있는 약 40 개의 지자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체 테마로 하여 분과회에서 토론을 펼칩니다. 분과회는 제 1 회 때의 3 개 분과회 ‘경제’, ‘환경’, ‘사회’에 지방 발전의 원동력인 ‘문화’를 새로이 추가하여, 4 개 분과회에서 일·불 공통의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들 과제에 대해 지자체간 협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역할을 탐구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기존 형태의 1 대 1 지자체간 교류 구조를 뛰어 넘은 새로운 지자체 교류의 모델을 확립시켜, 일·불 양국간의 관계 발전을 조장함과 동시에 지자체 교류의 규범으로서 세계에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공헌할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더없는 건승과 활약을 기원하며 일본 가나자와시 창의도시추진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